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제1차 아시아 농민연합 총회(1st Asian Farmers' Association General Assembly)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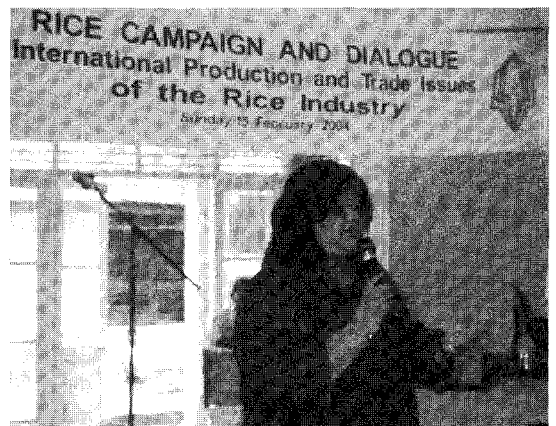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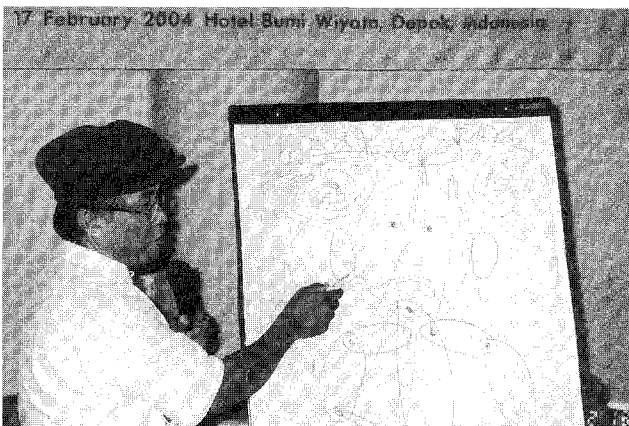
▲ 아시아 각 나라 농민단체들이 총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6박7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AFA(Asian Farmers' Association) 제1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2002년 초 경주에서 국제NGO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의 농민단체들의 조직으로 성장한 AFA는, 이번 총회에서 지

속가능한 농촌개발(Sustainable Rural Development)을 위한 토론과 강의, 기자회견, 정관개정 및 의장선출 등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한농연(KAFF) 대외협력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으며, 한여농(WAFF), 새농민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아시아농민연맹(AFA)은 지난 2002년 3월에 구성된 12개 아시아 국가의 농민조직체로서, 약 3년 동안 5개국(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과수농민 교환방문을 추진해 왔다.

식전행사로 진행된 각 나라별 전시회에서 한농연은 우리 쌀과 떡, 밥, 김치 등을 전시하여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지난 2003년 10월 칸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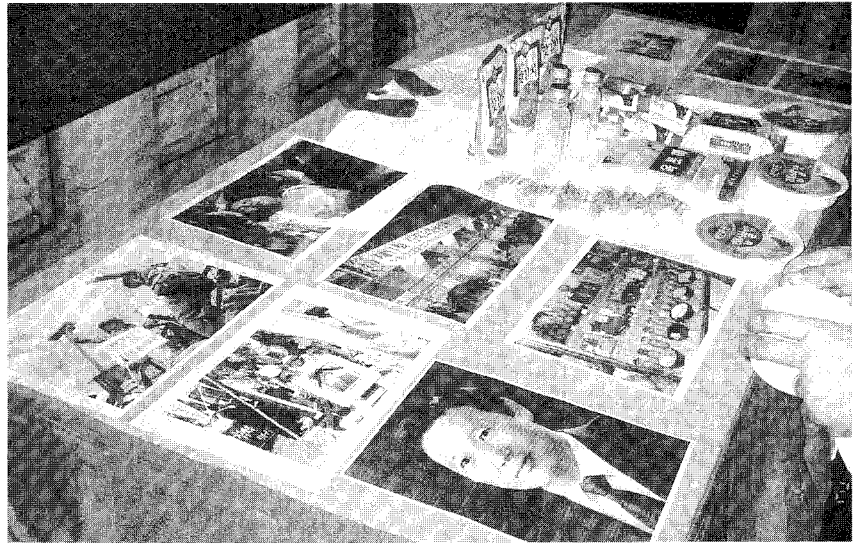
투쟁하셨던 이경해 열사의 사진 전시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경해 열사의 희생은 아시아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상당히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 한농연이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총회 일정 중 가졌던 초청강연프로그램에서 아시아 농업과 농민을 가난과 고통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WTO의 실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시아의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곡물메이저회사들로부터 쌀산업을 지키기 위한 아시아 농민들의 역할에 대한 강연도 함께 이어졌다.

현재 AFA의 정식 멤버 단체로는 태국(SorKorPor), 인도네시아(API), 필리핀(PAKISAMA), 대만(TWADA), 한국(KAFF) 등 5개국이며, 준회원 멤버로는 베트남(VNFM), 한국의 새농민회(BFA)와 한여농(WAFF)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임의장에는 인도네시아의 Mr. Tri Heru Wardoyo가 선출되어 향후 2년간 AFA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AFA는 앞으로 농업인적자원 개발과 각국의 지역NGO 네트워크 구성, 소작농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의 전통음식과 이경해 열사 사진 전시에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AFA 신임의장 Mr. Tri Heru Wardoyo(인도네시아)



산하연합회소식

일부 농협, 지난해 직원 임금 16.6%올려

경북 전남지역 농협개혁 박차

‘농협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북과 전남지역 등에서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은 어려운데 농협임직원들만 배를 채우고 있다며 농협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2일 한농연구미시연합회(회장 이말복)와 한여농구미시연합회(회장 김춘성) 회원 300여명이 장천농협앞 광장에 모여 ‘농협개혁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 결의대회를 가졌다.

농협개혁 비상대책 위원회는 이날 고임금의 임직원 봉급 및 경비 대폭 인하 상호금융 예대마진 및 대출금리 인하 경제사업 활성화화를 위한 조합내부 제도 개선 시 군지부 폐지 및 각종기능의 회원조합 이관 등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조합원 전원 탈퇴 조합해체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장천농협 조합장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6천 8백만원이며,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간부 임금을 4천만원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지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돼 칠곡군 가산, 청도군 금천 매전 서청도 선서농협 등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곡성군과 순천지역에서 농협개혁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곡성 석곡농협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최대 10%까지 해줄 수 있는 출자배당을 6%에 그친 반면,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이 무려 16.6%까지 인상해 조합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이밖에 천안에서도 한농연천안시연합회 목천 성남 북면회회가 지난 10일 동천안농협에서 ‘조합장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 시 군지부폐지 계통구매사업 활성화 농약 농기계수리센터 등 지도 경제사업 인력 합리화 고액 임금 임직원에 대한 임금상환제 등을 논의하는 등 농협개혁에 불씨를 놓고 있다.

한농연경기·경북, ‘닭 오리고기 많이 드세요’

최근 가금인플루엔자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닭과 오리고기 소비촉진 캠페인과 각종 행사가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3일 창원에서 한농연경남도연합회(회장 김종출), 한여농경남도연합회(회장 공점숙), 농협경남지역본부 임원이 함께 ‘경남농업희생 및 농협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출 한농연경남도연합회장은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소비자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가금류 사육농가를 살리는 일이 경남농업의 가장 큰 당면과제다”며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염동식)와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 임원들이 수원 시내의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시식 하는 등,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오리고기 먹는 날’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특별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라북도연합회 시군읍면동 회장단 교육

한농연 전북도연합회는(회장 임선택)는 지난 18일 전북농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04년도 시군읍면 회장단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정의 한농연 중앙회장, 고영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이상규 전북도청 농업정책국과장, 허인구 농림부인력과장 등 내빈과 시군읍면회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임선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결국 통과되긴 했지만 한농연은 이 위기와 절망을 새로운 희망과 기회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후 생산비 보장을 위한 직불제 쟁취와 농어민 복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위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승구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농업협상에 대비한 전북농업의 방향에서 올 한해 우리나라 농업은 DDA,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며 전북도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의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은 한농연지도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에서 지난해부터 투쟁해온 보람도 없이 FTA가 통과돼 허탈한 마음뿐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가부채 대책과 협동조합개혁, 고 이경해열사 추모사업계획 등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인구 농림부 농촌인력과장은 농정여건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서 정부는 쌀만은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쌀 협상에 대응해 나갈계획이라며 시장 개방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이 경쟁력을 기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불지불제 확대 실시와 경영규모화를 통한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쟁력 있는 쌀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은 주요 농업현안과 관련하여 3개 영역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첫시간에는 강승구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의 ‘농업협상에 대비한 전북농업의 방향’과 두 번째 시간엔 서정의 한농연 중앙회장의 ‘한농연 지도자로서의 자세와 역할’ 마지막 시간엔 허인구 농림부 농촌인력과장의 농정여건의 변화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교육일 실시되었으며 교육의 막바지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정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평창군연합회-하이앤드 자매결연 맺어

경영인자녀 장학금 지원, 농촌체험 휴양공간 제공 등 교류 확대

한농연평창군연합회(회장 이찬균)가 지난 18일 하이앤드(회장 전대월)와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한농연과 기업체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평창군을 시발로 향후 '1촌1사' 운동이 확대 활성화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평창군연합회는 하이앤드 직원들의 농촌체험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교류협력하고 하이앤드는 농업경영인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보광 휘닉스파크에 건축중인 하이앤드의 플래티넘타워 콘도가 개장되는 내년 시즌 콘도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찬균 평창군연합회장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기업과 농촌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 평창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에 정재돈위원장 선출

한국가톨릭농민회(이하 가농)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34차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재돈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장을 전국본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돈 신임회장은 취임연설에서 “대외적으로는 전국농민연대 소속단체들과 연대들을 강화해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역단위 조직인 분회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생산자공동체와 소비자공동체가 연대해 우리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우리농업살리기운동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면서 “올해부터는 농촌과 도시소비자 간에 먹거리를 나누는 차원의 운동을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과 생태 친환경적인 농법을 연계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한 정재돈 신임회장은 지난 76년부터 한국가톨릭농민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가농 전국본부 사무총장과 부회장, 남북농업교류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회장단에는 정한길, 이창현씨를, 감사에는 이진선, 조현선, 강기갑씨를 각각 선출했다. **민농연**